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07호 구독신청 (02)2004-8212 창간 28 1994~2022 (불기 2566년 음력 9월 17일)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5일 조계사 대웅전 특설무대에서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사부대중이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총무원장 진우 스님 "불교중흥 새역사 열겠다"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취임법회 봉행
10월 5일 조계사·우정국로 특설무대서
전국서 사부대중 1만여 명 운집해 축하
국회의원 60여 명 참석…역대최대 규모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 집행부는 오직 부처님 법대로 살며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의 벗이 되어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나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법회가 10월 5일 서울 조계사와 우정국로 일대서 성대하게 거행됐다. 종도들이 공의를 모아 단일 후보로 무투표당선된 첫 사례인만큼, 취임법회는 1만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종단 안정을 토대로 화합·상생의 가르침을 대내외로 확산시키는 법석으로 마련됐다.

진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진심으로 소통하고, 신심으로 포교하며, 공심으로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겠다"고 선포했다. 특히 기술문명의 발전 속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환경문제, 감염병 창궐,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안팎으로 산적한 어려움들이 인류의 큰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종교의 역할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마음의 평화를 지향하는 불교가 중생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 모든 사람들과 나누겠다"며 "국민들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는 길을 열고, 나아가 사회정의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국불교가 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를 위해 불교계 내부적인 혁신도 강조했다. 스님은 "세계적인 종교의 위기, 종교인구 감소라는 현실 앞에서 불교중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단 운영 시스템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교단 운영 시스템 변화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중생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이 시대의 참 종교의 상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법회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를 비롯한 의원 스님들과 전국 교구본사협의회장 덕문 스님(화엄사)을 비롯한 교구본사 주지 스님과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과 조계종 신행 및 포교단체, 신도 등 1만 대중이 참석했다. 특히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김진표 국회의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각당 대표들과 국회의원 60여 명 등 정계 인사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진우 스님의 향후 행보를 격려하고 부단한 수행과 정진을 당부했다.

성파 대종사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에서 "종단 내 갈등을 참회와 포용으로 섭수하고 화합승가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법도대로 종단을 운영하며, 종도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희망과 감동을 주는 종단으로 그 위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러한 모습은 만 중생의 복전이 되며 불교중흥을 이루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사부대중의 지혜와 공감이 세상과 함께하는 원력으로 나간다면 불교중흥의 길이 훤하게 열려 불교가 우리사회의 희망이 될 것"이라며 "특히 한국불교는 1700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 모두의 흥망성쇠와 함께 하며 호국애민·대자대비 정신으로 중생을 구제했으니, 진우 스님이 말씀하시는 불교중흥은 그동안 실천해온 역사와 일맥상통한다. 그 크신 자비에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모든 중생들이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길을 떠난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보살의 삶을 서원한다"며 "오늘 함께 한 사부대중 모두는 진심을 다해 이웃과 소통하고 신심을 다해 원력을 세워 전법의 길에 나서며 공심을 다해 중생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한국불교 새로운 중흥을 위한 대장정의 길에 함께 할 것"을 발원했다.

〈관련 인터뷰·기획 A2~5면〉

현대불교신문 창간 28주년 祝 詩

길을 묻는다

진리의 길을 듣는다
소리 없어도 들리고
모양 없이도 보이는
오롯한 眞性진성의 길

어떻게 살아야 하나?
복잡한 인생 길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鬪爭牢固투쟁뇌고 세상 길

산모퉁이 돌지마자
찍찍 짹짹 노래하며
즐겁게 놀던 산새
인기척 듣자마자
훅~~ 날아가며
날개 짓에 남긴 말
忘我망아에게 물어 봐

텅~~ 빈 하늘
하얀 구름 뜨 가며
주인공에게 물어 봐.

영축산 통도사 시탑전에서
맑은 가을 하늘을 보며
현대불교신문 제28주년을 맞아
창간의 그 날 묘공당 주인공 환한 미소가
함께 한 모든 대중이 법희선열에 충만했던
화호를 상기하며
금강행자 법산 미소지으며



법산 스님은

1945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15세에 남해 화방사에서 출가했다. 1980년 대만 중국문화대학 철학연구소에 입학해 6년간 수학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1986년 동국대 불교대학 선학과 조교수에 부임한 스님은 2010년 정년퇴임까지 25년간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들을 지도했다. 보조사상연구원장, 한국선학회장, 인도철학회장, 한국정토학회장 등 주요 불교학회의 학회장과 학교법인 동국대 제40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